

소망의 엄숙한 행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어느날 모처럼 시간이 만들어져 친분이 있는 친구들몇몇이 분식집에서 만두와 떡볶기등을 먹으려는데 느닷없이 내가 아는 한청년이 들어서며 인사를 해서 반갑고 놀라웠다, 더구나 난데없는 선물꾸러미를 내놓아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는데, 모처럼 그를 만났기에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는 친구들과 나온 음식을 먹는데 먹는맛보다는 그가 그 선물을 주려고 몇날며칠을 차에 가지고 다니다가 우연이 맞닥드린 상황에 내미는 선물에 받은 그감동은 나를 감격하게 했다. 그것뿐이 아니었다. 여자친구와 식사를 하러온 그는 우리가 알지못하는사이에 우리 4 명이 먹어치운 음식값까지 살짝 지불하곤 그렇게 사라진것이다. 세상에 산타가 있다면 이보다 더 멋질순 없지않을까? 우리는 내내 음식을 먹는중에 갑자기 나타난 근사한 청년 산타를 입이 닳도록 칭찬하며 신나는 저녁을 치뤘다. 집으로 돌아오며 나는 그와의 만남의 긴시간들을 한번 되짚어 보았다. 지금은 서른이 다된나이인 어른이지만 내가 그를 만났을때는 털이 보송보송한 미소년같은 틴 에이저였다. 유난히 피부가 깨끗하고 눈이 까맣던 그는 뉴욕주 한교도소안에서 자신의 한일에 대한 자책과 깨달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언제 출소할지 가늠할수없는 불안한 내일,과 출소한 후에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한 불투명한 앞날에대한 염려로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을 지내고 있었다. 지면으로 다할수없지만 8,9 년이라는 시간을 그곳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그를 면회하면서 그와 그를 사랑하는 가족들의 아픔의 긴시간들을 보며 나는 가정에서 한자녀가 겪는 아픔과 고통이 온가족을 아픔과 고통으로 몰아가기에 충분하다는 것과 가족은 정말 내몸의 한 일부분 처럼 고통에도 기쁨에도 하나라는것을 느끼기에 충분했던 그런 시간들이었다. 그런 그가 그리던 출감날이 왔지만 출감후에 그에게 기다리는 고통은 또다른 힘겹고 무거운 고통뿐이었다. 적당한 직업을 찾는 일과 문화적 충격으로 오는 적응문제도 힘겨운데 설상가상으로 추방이라는 무서운 명령이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것이였다. 그것으로인해 지난 4,5 년간을 변호사를 세워 계속 싸우고있는 그는 아직도

넘어야 할 가파른 산을 늘 눈앞에 두고 사는 그런 삶이었던 것이다. 그런 그가 한해 한해 지나면서 해결되지 않는 어정쩡한 상황에 있으면서도 자신을 잘 가다듬으며 안정감을 보이며 성실히 좋은 직장에서 열심히 사는 모습을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어느 누구 앞에서도 꺾이지 않고 당당하게 성실한 청년의 모습으로 건강하게 살고 있는 그의 지난 10 여년의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마음을 갖게 했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가족과 친한 이들 몇명외에는 알지 못할 것이다. 그의 지난 한해 한해는 수렁과 고통과 절망의 늪에서 한걸음 한걸음 빠져나오는 힘겹지만 의미있고 발전이 있는 엄숙한 삶의 행진이었던 것이다. 내게는 이런 이웃이 많이 있다. 연말을 며칠 앞둔 어느날 “전도사님 더 이상 콜걸을 연결해주는 직업으로 많은 돈을 버는 그직장은 양심에 부끄러워 못하겠어요”하며 찾아온 23 살 여자 청년은 14 살적, 갱과 도벽으로 도저히 사람될것같지 않았던 그 아이가 철이든 어른이 되어 가정이 너무 어려워 돈때문에 대학을 중도에 포기하고 그직장에 나갔지만 도저히 견딜수없다며 다 떨쳐 버리고 나온 자기를 자랑스레 여겨달라며 내앞에 나타난 그아이 또한 한걸음, 한걸음 인생의 엄숙한 행진가운데 있는 그런 아이였다. 새해 두째날이 되던 날 “전도사님 저 드디어 검정고시 패스했어요 그리고 요즘 레슬링 대학가려고 매일 연습중이에요:라는 전화를 해와 포커스의 스테프들이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게 한 그 18 살의 청소년은 13 세때부터 거리의 다른 갱아이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피하게 만들던 그런 골치아픈 그야말로 대책이 안서는 아이였다. 그러나 그 아이도 지난 4 년간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친구렁텅이를 딛고 일어서 걸어나오는 인생의 엄숙한 행진을 해왔던 것이다. 나는 새해에 내게 그리고 인생의 문제와 고통과 아픔속에 있는 모든 가정들에서 소망을 주고 싶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고통과 아픔속에 우리가 주저 앉아 있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작고 미약한 한걸음 한걸음을 시도만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보다 높은곳으로 끌어올려주는 엄숙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대행진을 시작할수있다는것을, 그래서 그 청년 산타처럼, 두청소년처럼 더럽고 추한 인생의 누더기옷을 벗어버리고 소망의 날개를 단 생명의 삶으로의 행진이 진행될수 있다는 희망의 소식을 주고싶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나와 나와 함께하는 포커스의 일꾼들은 다시한번 심호흡을 하며 어깨를
고추세우고 내일을 향해 아름다운 행진을 함께 할것을 다짐해본다.